

# 신종코로나 16번 환자 동선 확인... “롯데아울렛 안갔다”

SNS·단체카톡방 통해 떠돌던 ‘침단 찹질방’ 등 가짜뉴스로 판명

태국 여행도 다른 일행 없이 가족과...1월25일 이후 집-병원 대부분

광주에서 확인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6번째 환자의 동선이 공개됐다.

그동안 SNS와 단체카톡방 등을 통해 떠돌던 ‘롯데아울렛’이나 ‘침단 찹질방’ 등은 모두 가짜뉴스로 판명됐다.

질병관리본부는 5일 광주지역

‘신종 코로나’ 환자인 16번째 환자에 대한 이동경로 등 역학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광주 광산구에 거주하는 16번째 확진자(42·여)는 1월25일 자가용을 이용해 전남 나주에 있는 친정집에 방문했다가 오후 8시경 집으로 돌아왔다.

26일까지는 하루 종일 자택에 머물렀고 27일엔 발열 증상을 보여 광산구 광주21세기병원을 방문했다.

같은 병원에서 입원 중인 딸과 함께 1인실에 머물다 오후 6시쯤 자가용을 이용해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 응급실을 찾아 진료를 마치고

오후 10시쯤 광주21세기병원으로 이동했다.

28일부터 2월2일까지는 광주21세기병원에서 딸 간병과 본인 진료를 위해 병원 내에서 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2월3일에는 광주21세기병원 진료 결과 임상 소견이 악화돼 전남대병원으로 내원했고, 응급실 환자 분류소에서 선별진료소로 이동했다.

2월4일 전남대병원 음압병상에서 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

16번째 확진자가 11일간 접촉한

접촉자는 현재까지 306명으로 확인됐다.

접촉자는 이 확진자가 진료를 받은 전남대병원 19명, 광주21세기병원 272명, 가족과 친지 15명 등이다.

이 중 가족 4인을 대상으로 우선 검사를 실시한 결과 남편과 두 자녀 등 3명은 음성으로 확인됐다.

딸 1명은 확진자(18번째 환자)로 판명됐다.

앞서 전날까지 SNS와 단체카톡방 등을 통해 ‘16번째 확진자’가 광주 수완지구 롯데아울렛에 근무

하고 롯데시네마, 터미널, 침단사우나 등을 다니며 1300여명을 만났다는 출처 불명의 글이 떠돌았다.

16번 환자와 같이 여행간 일행의 거주지가 영주동과 풍암동, 화정동, 주월동이라는 내용도 나돌았다.

하지만 태국여행은 가족들과 같이 다녀왔고, 일본 역학조사 결과 오타 등 발열이 발생한 1월25일부터는 집과 병원에서 주로 생활한 것으로 확인돼 인터넷에 떠도는 글은 가짜뉴스로 판명됐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8번째 확진자가 5일 광주 광산구 광주21세기병원에서 동구 전남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 ‘18번 환자’ 마스크만 쓴 채 휠체어 끌고 119 탑승 ‘논란’

질병관리본부·보건소 직원만 보호복 등 중무장

광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8번째 확진환자(21·여)가 별다른 감염 차단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이송되는 모습이 노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질병관리본부는 전남 확진 판정을 받은 16번 환자(42·여)의 딸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환자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18번 환자’는 광주 21세기병원에서 인대봉합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중이었으며, 16번 확진환자는 딸

병간호를 위해 수일간 이곳 병원에서 같이 생활했다. 확진 판정으로 18번 환자는 이날 오전 119 응급구급차량에 의해 21세기병원에서 전남대병원 음압병동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이송과정에서 18번 확진 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했을 뿐, 장갑도 끼지 않고 여타 방역이나 차단용품 없이 휠체어에 앉아 병원 건물 밖 구급차량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노출됐다.

더욱이 휠체어도 직접 끌어 운

직했고, 보건소 직원은 링거액만 들고 옆에서 움직였다.

반면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과 보건소 직원 등은 전신보호복이나 장갑, 보안경 등으로 중무장한 상태였다.

광주 소방본부 관계자는 “병원간 환자 이송은 119 구급대가 출동하지 않으나, 이번처럼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차량과 운전기사, 처치자만이 지원된다”면서 “확진환자에 대한 노출과 방역용품 미착용은 현장에 있던 질병관리본부 직원과 보건소 직원의 대처가 적절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16·18번 확진환자’ 발생 광주, 마스크 구하기 ‘발동동’

감염환자 발생에 대형마트·약국 등 구매 폭주  
“아이들 것만이라도”...광주시 “구매 지장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확진 환자가 광주에서 잇따라 나오면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광주 거주 40대 여성 A씨가 16번째 확진판정을 받은 데 이어, 5일엔 A씨의 딸도 18번째 확진자로 최종 확인됐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광주 지역 대형마트는 물론 슈퍼마켓과 약국에도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시민들이 몰리면서 마스크가 동이 났다.

광주지역 중심 상업지구인 상무지구 대형마트에는 마스크를 사려는 인파로 붐볐지만 조기에

품절돼 시민들이 발을 동동 굴렀다.

홈플러스 광주 하남점 관계자는 5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어제부터 마스크를 사려는 사람이 늘면서 재고까지 다 바닥났다”며 “일부 어린이용 마스크만 남아 있다”고 밝혔다.

주민 A씨는 “마트에 마스크를 사러 갔으나 다 팔리고 없어, 조금 더 비싸지만 인근 약국에서 마스크를 샀다”면서 “그나마 약국에서라도 마스크를 살 수 있는 것은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 말했다.

인터넷에서는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한 시민들의 불만도 쏟아

지고 있다.

16번째 확진자 반경 5km내에 거주한다는 한 네티즌은 “어제 오전부터 오늘 새벽 6시까지 돌아다니는 마스크를 구할 수가 없었다”며 “주위의 약국, 편의점, 대형마트 모두 다 마스크 품절 대란”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짜는 꿈도 안 꾸니 확진자 근처에 사는 분들 마스크 좀 살수 있게 도와 달라”며 “특히 아이들 마스크라도 사서 쓸수 있게 조치좀 취해 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아직까지 시민들의 마스크 구매는 큰 지장이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오전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회의에서 마스크를 구입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보고가 있었으나, 민생사법경찰과에서 현장 상황을 체크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며 “마스크 배치와 가격, 보급 등에 지장이 없는지 파악해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으로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과 판매 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5일 0시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시행한다.

5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매점매처한 생산자와 판매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뉴스1

**NDP 인쇄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803번안길 93-10  
TEL: 062)943-0135 ~ 6  
FAX: 062)943-0134